

社說

5·18 거짓말 들통, 송언석 물리나라

역시 또 거짓말이었다. “난 더러워서 안 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목소리가 담긴 녹음과일이 공개됐다. 취재진이 18일 광주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르지, 어떤 상황 생길지”라면서 “그래서 난 더러워서 안 간다”며 웃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도 모자라서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조치까지 들먹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시민과 5·18 영령들을 조롱하는 천인공노할 망언이다”고 비판했다. 정창래 대표는 “전국민 청력테스트 문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언급한 박홍배 의원은 “5·18 기념식 가는 일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러워서라고 우겼던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거짓말보다 심각한 문제는 보수정당의 그릇된 역사관이다. 송언석 의원은 2021년 비대위원장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회하고 반성했었다. 국가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는 척했지만 5년 만에 냉소하며 멸시했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총보좌관은 스투드에 “내일 스타벅스(스타벅스)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란 글을 올렸고, 김선민 거제 시장 후보는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이라는 댓글까지 달았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국민의힘이 외쳤던 국민 통합과 역사 바로세우기가 얼마나 알파한 포장이었는지 송언석 의원의 거짓말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당장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억을 뒤집은 정략적 위선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협박과 거짓말부터 사과하고 환골탈태하라.

‘미·이란전 이후’ 자강 능력 키워야 한다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매사를 거래 관계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탓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선전포고 없이 선제 타격했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데드 라인인 4월7일 ‘2주 휴전’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등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 공격을 보류하고, 이란에 협상을 위한 짧은 기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초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결사 항전, 19~20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립리 정상회담에서 ‘다극 세계 구축’을 고리로 한 이란 지지, 11월 미 중간선거 부담 등이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미·이란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세계는 국제질서 주도국이던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란 등 중동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해 중동의 새 규범이 만들어지는 데 적극 관여해야 한다. 중동 질서 재편을 염두에 두고 중동 각국의 전후 복구사업 참여에서 공격개발원조(ODA)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외교와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대외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자강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재정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동서 외교는 좋은 사례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긍정 평가한다.

고유가가 가져온 전기차의 ‘제2 전성기’



데일리 Talk

이영훈 산업부 기자

캐즘 상태에 빠졌던 전기차가 고유가가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올해 초 완전 전기차 전환을 약속했던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들마저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치중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고 테슬라코리아와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며 캐즘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순간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180도 변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0.8% 뛰었고 휘발유 가격은 21.1% 상승하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대표적 소모품인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이 11.6% 상승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현대차의 3월 전기차 판매량은 7809대

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7대) 대비 38%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1만9040대를 팔며 지난해 1분기에 실적(1만1359대)보다 67.6% 올랐다. 기아는 올해 3월과 4월 각각 1만6187대, 1만3935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48.6%, 131.3%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1만1800대에 그친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3만4303대가 지 상승하며 190.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차 선호도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4월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총 1만3190대를 판매했다. 이는 3월(1만134대)보다 18.5% 증가했으며 전년 4월(1449대) 대비 810.4% 폭증한 수치라고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는 발표했다.

특히 모델Y와 모델3 등 승용 전기차만으로 실적을 올리며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신차등록 승용 수입차량 차종별 대수에서 모델Y와 모델3은 각각 1만86대, 2596대를 기록하며 1위와 2위에 자리했다.

전기차 수요 상승은 정부의 발표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

면 지난해 14월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 10만대 돌파 시점이 7월 들췄다. 더이상 전기차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수의 기호가 아닌 고물가·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필수재로 변화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 변수가 정제되어 있던 전기차 시장을 깨운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진부한 명언이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금 증명됐다. 고유가로 인해 내연기관차 시장이 위기를 맞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향방이 안갯속인 상황에서 고유가는 더 이상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새로운 친환경차를 쏟아내며 대중화의 가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위기는 전기차를 불협음을 감수하는 차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전기차는 시대를 앞서는 이들의 선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탱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yilee@skyedaily.com

뉴질랜드 넬슨의 노이도르프 샤도네이



와인이야기

어승룡 와인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

최근 국내에서는 뉴질랜드 소비용 블랑에 대한 관심도와 판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 하면 말보로우의 소비용 블랑만 우리는 주로 마셔왔다. 오늘 소개하는 넬슨 지역의 샤도네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샤도네이와 견줄 만큼 훌륭하다.

비록 뉴질랜드의 와인 지역 중 작은 규모에 속하지만, 넬슨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은 높은 품질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와인 생산자들은 전형적인 상업 와인과는 차별화된 마시기 좋은 훌륭한 와인을 제조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넬슨 지역 와이너리는 소비용 블랑보다 샤도네이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중 ‘노이도르프 빈야드(Neudorf Vineyard)’는 이 지역을 세계적인 와인 산지로 성장케 했다. 노이도르프는 독일계 이민자인 팀 핀과

주디 핀 부부에 의해 1978년 뉴질랜드 남섬 넬슨에 설립한 가족경영 와이너리다. ‘노이도르프(Neudorf)’는 ‘새로운 마을’이란 의미로 당시 거의 개척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소규모 프리미엄 와이너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점도가 풍부한 모우테레 클레이 토양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은 포도밭에서 최상급의 샤도네이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유기농 공법과 자연 효모발효, 최소한의 개입, 절제된 오크 사용을 통해 포도와 빈야드 고유의 개성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뉴질랜드 남섬 위쪽의 넬슨 지역은 따뜻한 자갈이 깔린 토양에 직접 퇴비를 만들고, 긴 넬슨 일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와이너리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오늘날 생산은 제너럴 매니저이자 와인 메이커인 토드 스티븐스가 주도하고 있고 2세인 딸 로지 핀이 운영하고 있다.

노이도르프 빈야드에서 생산된 와인은 몇몇의 훌륭한 유티피안 레스토랑의 와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대표 와인인 홈블럭 모우테레 샤도네이(Home Block Moutere Chardonnay)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와인 장인을 일컫는 마스터 오브 와인 밥 캄벨로부터 96,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제임스 서클링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가장 독특하고 일관되며 복잡한 와인 중 하나.”라며 96점을 주었다.

시트러스, 흰꽃, 자스민과 같은 프로펠, 갓 구운 브리오슈, 복숭아, 서양배, 열대과일, 허브 향신료 아로마를 느낄 수 있고, 우아한 산도를 지니고 있다. 복합적이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 와인으로 미네랄이 느껴진다. 10년 정도 숙성 잠재력이 있으며 병일 숙성을 통해 훨씬 더 복합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어울리는 요리는 닭강정, 오일파스타, 해산물, 중국요리, 탕수육, 파르미지아노 레치아노 치즈, 수육 등이다.

2세 경영을 하는 ‘로지 핀’의 이름을 붙인 ‘로지스블럭 모우테레 샤도네이(Rosie’s Block Moutere Chardonnay)’는 해발고도 90미터의 밭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고 있다. 현대적인 샤도네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를 담은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언칭이' 이야기
중학교 때 절친한 친구 중에 '언칭이'가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학할 때까지 몇 번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물론 중학교 시절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흔적이 그가 언칭이였음을 알게 하였다. 언칭이는 한문으로 토순(兔脣·도끼입술)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의학에서는 구순열(脣裂)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 어떤 물건의 한쪽이 찢어지거나 벌어진 것을 언칭이라고 했다. 옛 문헌에는 가리어해나(鰐肋缺)·(한칭문검)·(고리)를 아치고(구급간이방) 등과 같이 '어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다. '어허다'는 '베다(割)'의 뜻이다. '어리다'·'어디다'·'어디다'의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엇팅이(언칭이: 翯脣子)'·'어어유해성'이라고 나타나 있다. 또한 '엇'은 '코'의 옛 글자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 '엇'과 '팅이'의 합성어라는 것이다. 그 예로 먹덩이(귀머거리)를 들었다(서정범, <새국어어원사전> 참조). 여기서 '팅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속담에 '언칭이 통소 대두'라는 말이 있는데 입술이 찢어진 언칭이가 통소를 제대로 볼지 못하듯이 말씨가 일정치 않고 황실수살한다는 뜻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학회 회장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재대 주경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드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10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 청송빌딩 34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1부 1,300원/월 20,000원/연 240,0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Background image of hands holding a small plant seedling)